

2019년 1월 15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제약 바이오, 반도체 업종 하락 주도 유틸리티 업종도 PG&E 파산 보호신청 우려로 부진

###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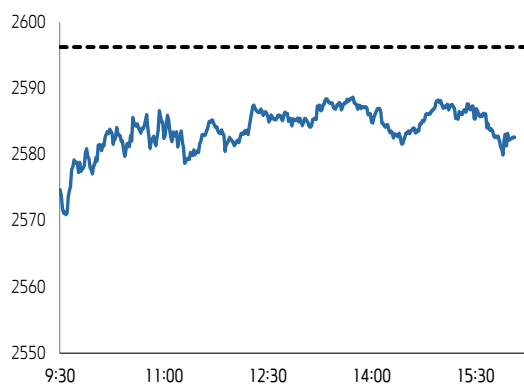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출발한 가운데 제약업종과 유틸리티 업종이 악재성 재료로 하락 주도. 더불어 애플과 반도체 업종이 하락한 점도 영향. 반면, 씨티그룹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하락폭 축소(다우 -0.36%, 나스닥 -0.94%, S&P500 -0.53%, 러셀 2000 -1.01%)

미 증시는 ①경기둔화 ②약가 관련 청문회 ③금융주 실적 발표 ④반도체업종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 중국 해관총서는 12 월 수출이 무역분쟁 여파로 달러 기준 전년 대비 4.4% 감소. 수입도 7.6% 감소했다고 발표. 일부 해외 기관은 중국 수입 감소가 향후 GDP 성장을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이런 가운데 OECD 는 11 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99.5) 보다 둔화된 99.3 으로 발표. 특히 미국(99.8→99.6), 독일(99.9→ 99.8) 등 선진국이 주도한 점이 특징 반면, 중국(98.7→98.8), 인도(101.95→101.0) 등 신흥국은 반등

제약 바이오 업종 하락도 미 증시 부진 요인. 이는 미 하원이 제약 업계의 가격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날 하원 감독 및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2 개 주요 제약 회사에게 의약품의 가격 책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문서를 요구 했다고 발표. 커밍스 위원장은 “제약 회사들이 획기적인 약물을 개발해 건강에 공헌 했으나, 높은 가격을 지속할 수 없다. 관련해 향후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라고 언급.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제약 바이오 업종은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

한편, 웨스턴디지털(-4.92%)은 D 램에 대한 평균 판매 가격이 낮아지며 수익에 대한 경고와 목표주가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마이크론(-3.72%)은 모건스탠리가 2019년 메모리칩 가격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 이런 가운데 씨티그룹(+3.95%)은 매출이 부진했으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하자 상승. 미국 4 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적 둔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4.52	-0.53	홍콩항셱	26,298.33	-1.38
KOSDAQ	683.09	-0.47	영국	6,855.02	-0.91
DOW	23,909.84	-0.36	독일	10,855.91	-0.29
NASDAQ	6,905.92	-0.94	프랑스	4,762.75	-0.39
S&P 500	2,582.61	-0.53	스페인	8,818.60	-0.66
상하이종합	2,535.77	-0.71	그리스	629.88	-0.92
일본	20,359.70	휴장	이탈리아	19,171.48	-0.6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강세

씨티그룹(+3.95%)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JP모건(+1.03%), BOA(+1.31%), 웰스파고(+1.15%) 등 여타 금융주도 동반 상승 했다. GM(+1.29%), 포드(+1.93%) 등 자동차 업종은 디트로이트 모터쇼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웨스턴디지털(-4.92%)은 D램에 대한 평균 판매 가격이 낮아지며 수익에 대한 경고와 목표주가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했다. 특히 배당금 축소 전망도 영향을 줬다. 마이크론(-3.72%)은 모건스탠리가 2019년 메모리 칩 가격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두 종목의 악재성 재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5% 하락 했다. 애플(-1.50%)도 서비스 매출이 18%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자 하락 했다.

가스, 전력업체인 PG&E(-52.36%)가 캘리포니아 산불 발화 관련 배상액 추징으로 파산보호신청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했다. 이 여파로 넥스테라에너지(-2.55%)등 유틸리티 업종이 대부분 투자심리 위축으로 급락 했다. 제약업종 에브비(-2.84%)는 배당락으로 하락 했다. 머크(-2.04%), J&J(-1.13%), 화이자(-1.19%), 일라이릴리(-1.29%) 등은 민주당이 약품가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07%	대형 가치주 ETF	-0.37%
에너지섹터 ETF	-0.18%	중형 가치주 ETF	-0.62%
소매업체 ETF	-0.73%	소형 가치주 ETF	-0.72%
금융섹터 ETF	+0.69%	배당주 ETF	-0.76%
기술섹터 ETF	-0.93%	변동성 ETF	+0.3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92%	대형 성장주 ETF	-0.74%
인터넷업체 ETF	-0.72%	중형 성장주 ETF	-0.77%
리츠업체 ETF	-0.31%	소형 성장주 ETF	-1.17%
주택건설업체 ETF	-0.71%	신흥국 고배당 ETF	-0.60%
바이오섹터 ETF	-1.69%	신흥국 저변동성 ETF	-0.42%
헬스케어 ETF	-1.10%	하이일드 ETF	-0.29%
곡물 ETF	-0.46%	물가연동채 ETF	-0.18%
반도체 ETF	-1.71%	Long/short ETF	+0.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7.43	-0.19%	+1.85%	-2.06%
소재	324.92	-0.77%	+0.78%	+0.75%
산업재	571.14	-0.03%	+3.36%	+0.32%
경기소비재	822.70	-0.68%	+0.65%	-0.16%
필수소비재	527.67	-0.49%	+0.41%	-6.84%
헬스케어	1,005.45	-1.16%	+0.66%	-5.37%
금융	409.68	+0.73%	+1.54%	+1.19%
IT	1,105.31	-0.92%	+1.54%	-4.56%
커뮤니케이션	146.47	-0.41%	+0.87%	+0.38%
유틸리티	264.22	-2.23%	-0.70%	-7.94%
부동산	197.82	-0.30%	+2.85%	-4.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8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1,752 계약)에 힘입어 0.90pt 상승한 266.3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0.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출입 통계 부진과 OECD 경기선행지수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자극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일 이미 일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한편, 지난 11 일(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30~31 일 미국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무역분쟁 관련 회동을 가진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다.

더불어 브렉시트 협상안 표결을 앞두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들이 소프트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완화 된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보수당내 EU 탈퇴를 주장하는 ERG 그룹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EU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안전장치’를 피할 것이며, 진행이 된다고 해도 조기에 종료할 것이다 라고 주장해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영국발 정치 불확실성을 완화 시킬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한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경기침체 신호는 없으며, 올해 연준은 매우 큰 인내심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중국 수출입 통계 둔화

중국 12 월 수출은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4.4% 감소 했다. 이는 전월(yoy +5.4%)과 예상치(yoy +3.0%) 모두 하회했다. 한편, 12 월 수입은 7.6% 감소해 무역 흑자 규모는 571 억 달러를 기록했다.

11 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 감소해 예상치(mom -1.5%)를 하회했다. 전년 대비로는 3.3% 감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차익매물 출회되며 하락

국제유가는 중국 수출입 통계 부진과 OECD 경기선행지수를 빌미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더불어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글로벌 경기는 충분히 강해 수요 둔화를 우려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 했으나 유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달러화는 섣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 및 파운드화 강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보수당내 EU 탈퇴 그룹인 ERG 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하고 메이 총리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EU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안전장치를 피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파운드화 강세에 영향을 줬다. 소프트한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시행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파운드화 및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및 옐런 전 연준 위장이 “연준은 마지막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올해 연준은 매우 큰 인내심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자 장기물의 경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0.29% 상승 했으나 철근은 보합을 유지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0.51	-2.09	+4.10	Dollar Index	95.593	-0.08	-0.08
브렌트유	58.99	-2.46	+2.90	EUR/USD	1.1469	0.00	-0.04
금	1,291.30	+0.14	+0.11	USD/JPY	108.17	-0.29	-0.51
은	15.686	+0.19	-0.44	GBP/USD	1.2870	+0.20	+0.73
알루미늄	1,828.00	-0.44	-2.69	USD/CHF	0.9812	-0.23	+0.15
전기동	5,897.00	-0.76	-0.44	AUD/USD	0.7198	-0.24	+0.70
아연	2,484.00	-0.32	-0.56	USD/CAD	1.3276	+0.07	-0.17
옥수수	378.50	+0.07	-0.98	USD/BRL	3.6976	-0.43	-0.94
밀	514.25	-1.01	-0.48	USD/CNH	6.763	+0.04	-1.22
대두	903.50	-0.74	-2.25	USD/KRW	1123.00	+0.59	+0.39
커피	102.75	-1.06	0.00	USD/KRW NDF1M	1120.70	+0.28	+0.3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01	-0.01	+0.46	스페인	1.415	-2.70	-8.30
한국	1.972	-2.30	-0.80	포르투갈	1.679	-2.20	-13.80
일본	0.017	0.00	+2.70	그리스	4.276	-0.50	-8.40
독일	0.231	-0.80	+1.00	이탈리아	2.841	-1.00	-5.60